

지난해 금융사 2곳 실적

순익 5.8조 '어닝서프라이즈' 은행이익 확대가 실적 견인

KB금융그룹

5조클럽 1년만에 6조원 바짝 다가서
자기자본이익률 10.86%, 1.12%p 상승
국민은행 당기순익 3.8조, 18.8% 증가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순이익 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5조 클럽'을 달성한 지 1년 만에 6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KB금융은 5일 2025년 누적 당기순이익 5조 8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6%로 전년 대비 1.12%p포인트(p) 높아졌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8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늘었다. KB금융 재무담당 나상록 전무는 "환율, 금리 변동 성 확대 등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핵심 계열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자본시장 관련 수익을 중심으로 비이자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그룹의 수익 창출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순수수익이익은 4조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해 분기별 평균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확대되며 증권업 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었고, 뱅카슈랑스 판매 호조와 신탁이익이 확대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순이자이익은 13조73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성 악화가 우려됐지만 은행의 대출자산 평잔 증가와 함께 전략적인 핵심예금 확대 정책으로 조달비용이 줄었다.

작년 4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7213억원이다. 그룹 희망퇴직비용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과정금 관련 충당부채 전입 등 일회성 요인의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그룹의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797조9000억 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4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79%, 16.16%로 업계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KB금융은 실적 개선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을 발표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2025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전년 동기 804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1605원으로 결의했다. 기자급된 2025년 분기별 현금배당을 포함한 총 현금배당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연간 배당성향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7%로 고배당기업 기준인 25%를 넘어서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전년말 CET1 비율에 연동해 산출된 2026년 1차 주주환원 재원도 역대 최대인 총 2조8200억 원 규모다. KB금융은 이를 현금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에 각각 1조6200억원, 1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주주(국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 그룹이 각각 고민을 거듭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당기순익 4.9조 '역대최대' 비이자이익 중심 실적 날개

신한금융그룹

당기순익 11.7%, 비이자이익 14.4%↑
"조달비용 효율화로 NIM 2bp 개선"
대손충당금 전입액 전년비 4.1% 감소



신한금융그룹. /뉴스1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4조9716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5일 신한금융은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4조97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조5175억원) 대비 11.7% 증가한 수준이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5106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비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이 컸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3조7442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4% 증가했다. 수수료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보험이익 등 비이자이익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11조69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조달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분기 대비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2bp(1bp = 0.01%포인트) 개선됐다"며 "수익성 중심 적정 성장을 통해 4분기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고 말했다.

비은행 자회사의 실적회복에 따라 그룹 손익 개선흐름도 강화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3815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전년(1792억원)과 비교해 113% 늘었다. 신한자산신탁은 2024년 3206억원 적자에서 2025년 19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조1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 외상폐출금이나 대출금 등 받을 돈(채권) 중, 미래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대손상각

비)으로 처리해 적립해 둔 예비금을 말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연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경상적 손실이 감소했다"며 "대손비용률도 하향안정화 됐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자본비율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그룹 BIS자기자본비율은 15.92%,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33%를 기록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통상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0%를 넘으면 우량은행으로 평가한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분기 주당 배당금을 880원으로 결정했다. 개인 투자자의 분리과세 혜택 적용을 고려해 기준 570원에 추가 310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를 포함한 지난해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이다.

신한금융 장정훈 재무부문 부사장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자본비율 관리, 자기자본이익률(ROE) 중심의 벤류업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견조한 재무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4억 집 소유자, 주택연금 월 4만원 더준다

금융위, 2026 주택연금 개선방안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1.0%로 인하
요양시설 입주해도 주택연금 가입

앞으로는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시설, 자녀 집에 거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또는 확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준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요〉

구분	세부내용
가입연령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보유주택 수	부부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산금액 12억원 이하(다주택자도 가능)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2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부로 가능
주택 요 건	주택가격 거주여부 주택유형 *1. 실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 2.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재산세 납부 등 가능해야함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지원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수령액 우대 폭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 월 12만4000원 오른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평균 가입자(주택가격 4억원)의 경우 초기보증료는 기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재무 상환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만에 '둔화'

다주택자 양도세 등 효과에 관심
마포 상승률 0.26%, 동작 0.29%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둔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2·9 공급대책 등 부동산 압박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지난주(0.3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지난 1월부터 3주 연속 확대되다가 한 달 만에 둔화한 셈이다.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크게 꺾였다. 지난주 각각 0.41%, 0.4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마포구와 동작구는 이번주 0.26%, 0.29%로 상승폭이 줄었다. 성동구 역시 0.40%에서 0.36%로 둔화한 모습이다.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의 집값 상승률이 0.31%에서 0.18%로 축소됐고, 강동구(0.39→0.29%), 노원구(0.41→0.30%)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폭이 완만해졌다.

세제, 대출 등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

고 새로운 공급대책이 나오면서 매수를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11개구의 상승률은 0.27%로 전주(0.32%)에 비해 둔화했지만 관악구는 오름폭을 기록했다. 관악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상승하며 0.57%를 기록했다.

강북 14개구는 상승률 0.26%로 지난주 0.30%에서 다시 0.2%대로 내려왔다. 성북구(0.41%)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36%)는 옥수·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는 3주 연속 0.13%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수지구(0.59%)는 풍덕천·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구리시(0.53%)는 인창·교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48%)는 호계·관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은 0.02%로 지난주(0.04%)보다 오름폭이 작아졌다. 연수구(0.12%)는 연수·동춘동 선호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산곡·갈산동 위주로 올랐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